

2020학년도 1학년 1반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메시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학산 속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았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며 간절히 지켜 내야 할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우리는 모두 삶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느낌입니다. 이후로는 더 설레고 감사가 넘칠 것 같은 일상일 것 같은 느낌, 그 어떤 순간도 당연한 것은 없음을 의식하게 되는 날들이 것 같은 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는 학신이 넘칩니다.

22년간의 교직생활 중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의 새로운 만남에 더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담임은 누구?〉

1. 학력 : 경북대 영어교육과(사범대 전체 차석 입학) 및 경북대 대학원 영문학과(수석입학) 졸업
2. 경력 : 임용고시 수석합격 후 대구고(4.6년)-경덕여고(4년)-사대부고(7년)-대구여고 초빙교사(4년) 그리고 강동고 초빙교사 4년차 22.6년 교직경력 중 21년 담임(고3담임 6년, 고1담임 13년)
3. 담임으로서의 목표 : 떨들(현재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담임이라면 이렇게 하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기...

〈2020년 학급 운영 세 가지 방향〉

1. 하고 싶은 일 열정적으로 하기 - 꿈 찾기, 잠재력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발휘
2. 해야만 하는 일도 고 싶은 일 하듯 하기 - 책임감, 성실성, 준법성
3. 더불어 하기 - 배려, 나눔, 타인 존중, 협력, 관계지향성

〈1학년 과정의 의미〉

1. 현실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시기
 2. 중학교와는 다른 프레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적응하는 첫 출발점
중학교에 비해 분량과 깊이가 있는 학습이 요구되어 성적으로 나타나는 데 숙성의 과정 필요 - 더 큰 인내가 필요
 3. 3년 동안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
기본 생활습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후 과정에서 성적도 절대 오를 수 없음
 4. 인격적 성장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 :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키우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며 미래를 설계하고 삶에 대한 자신만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과정임
 5.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기 :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에 충실히며 과정 속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과정
평생 친구를 만들고 가장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
- * 전반적으로 1학년 과정은 인성과 학업 등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는 시간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

〈1학년 과정 중 학업 성공을 위해서는〉

1. 어디서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공부보다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데 가정에서의 협력도 중요함. 공부는 엉덩이로...
2. 우선으로 시작해도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는 비결은 기다려주기
공부를 여간 독하게 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는 집중력, 학습효율 등이 부모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수준이 대부분일 것임
집중하는 방법은 집중하는 척하기, 수업 이해도는 척하기... 그런 가증스러워 보이는 우선을 통해서도 무의식중에 최고를 담아 간다!!!
이미 성적으로도 드러나지만, 고등학교의 시작은 제각각 출발점이 다 다른 불공정게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단순 비교로 아이들의 각기 다른 발달단계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부모님의 기대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음
출발점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궁극적으로는 도착점으로 자신의 꿈을 완성함

3. 자투리 시간의 활용

사소함의 중요성. 사소한 것을 잡으면 큰 것이 따라옴. 고등학교 공부는 절대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없음

고등학교 공부의 경우 공부를 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으니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

4. 학교 수업에 읊인하기

학원수업도 결국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 보조역할이 되어야 함

수업이 이해 안 되면 예습(영어- 예습진도의 단어를 미리 암기하기), 수학- 관련 중학교 개념을 보충하여 수업에 임하기)으로 보완
수업 후에는 철저한 관리(그날 공부한 건 그날 마무리하기)

〈그래서 학급에서 실시하게 될 구체적인 방안〉

1. 면학 분위기를 위해

- 1) 학반 대표학생이 진행하는 아침 영어 단어 시험 및 꾸준한 아침 독서
- 2) 매일 신문 사설 등 좋은 글 한 편씩 읽고 댓글 달기
- 3) 매주 학습플래너 검사로 체계적 학습 유도
- 4) 희망자에 한해 자기주도적 영어학습을 위한 영어 멘토링 실시
- 5) 다른 반 학생들 출입 제한, 수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너무 소란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도록 유도함

2. 학생들 고민 해결을 돋기 위해

- 1)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상담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진로, 학습코칭, 그 외 고민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2) 꿈상담노트에 구체적인 학교생활과 성장과정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서면을 통한 상담이나 교감을 이어감

3. 탄탄한 기본기를 위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 1) 학생들의 학급에서의 모든 생활을 담임이 관찰하여 생활기록부에 적극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2) 삽으로 쓰는 생기부, 대학 자기소개서

※ 대학자소서 공동창목(우리반 학급운영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 ①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
- ② 학교 공동체(동아리, 학습, 학교 등)에 기여한 교내활동(수업활동 포함)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과 수업내용에 대한 심화탐구 학습 및 독서 등으로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는 과정 기록
 - 학교나 학급의 행사나 프로그램, 동아리, 봉사활동 등에 나눔과 배려를 생활화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노력하며 성장하는 과정 기록평소에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됨. 평소의 사소한 것을 지켜나가며 스스로 절제하며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지치지 않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음

〈가정에서 협조해주시길 일들〉

1. 학교에 대한 믿음, 담임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다림

1001번 째 망치질로 둘을 깨뜨렸다면 1000번의 망치질도 둘을 깨고 있었던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인정해주시기

2. 1학년일수록 기본 독서력이 중요함(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수학 등 모든 과목에 관련됨)

“재미없는 글을 골라서 읽기” 시간흐름이 아닌 논리적 흐름의 글을 읽어 독해력 및 추론력을 향상시켜야 함

수학의 힘도 생각의 깊이에서 나오며 이는 수와 수학의 체계의 논리적 흐름으로 답을 추론해내는 것이므로 기본 독서력도 중요함

그래서 신문 등에서 볼만한 수준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셔서 자녀가 짬짬이 읽도록 도와주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훈련도 효과적임. 단, 문학문제는 풀어보면서 보편적 공감능력을 익히는 것이 좋음

3.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의논하여 방향 정하기

4. 대화 많이 하기 : 해결책 제시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공감하며 경청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알아서 힘 낸

〈학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선행은 필수인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선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됨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 메타인지(metacognition)의 발달

2. 메타인지란? “인지에 대한 인지” 즉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

즉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 미리 알고 시험에 대비하지만, 못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다가 심지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시험 칠 때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걸 문제를 틀려가며 깨닫게 됨

3. 메타인지를 갖추는 방법은? 공부는 학습으로 이뤄지는데 학생들은 습보다 학에 더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음

배우기만 하면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대충 흘려가게 됨

어설픈 선행이 위험한 것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 절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메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임

학원에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습의 기회를 갖지 못해 메타인지 형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습시간 확보 중요

4. 그렇다면 학원은 어떻게 활용?

1)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부족한 부분을 단기간에 채워 학교수업에 충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음

2) 수학 : 현재 진도까지 자신이 있는 경우만 자연스럽게 능력 되는 데까지 선행을 하도록 유도함

3) 영어 : 절대로 자신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업을 듣지 말고 쉬운 거부터 단계별로 하다 보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음

너무 어려우면 계속 강으로 찍는 습관 형성으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반·반·추론 등의 주요 문제를 맞히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

영어는 학원을 가든 안 가든 스스로 영어단어 암기하고 독해하는 과정으로만 실력이 오르게 되어 있음

〈입시에 대한 기본〉

1. 잊은 입시의 변화로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은?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다. 그것도 다른 대학보다 선점해 가려고 애쓴다.

2. 내신은 수시, 수능은 정시?

정시에서 내신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있지만 내신과 수능(심지어 논술까지도)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임. 내신은 보다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단기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뿐... 그러니 평소 내신에 충실하며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수능이라는 종착역이 나옴. 그리고 그 방향에서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종착역을 지나는 수준이 되었다면 논술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음(단, 이과의 경우는 수능수학, 과학으로 거의 대비가 되지만, 문과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읽기에 대한 입력이 덜 되어 있다면 3학년 때 글쓰기 등의 출력의 훈련만으로 한계가 있는 함). 수능도착점과 논술까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수능의 충실한 대비만으로도 논술의 기회까지 얻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짐

(단, 논술은 차차 축소되어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서는 거의 사라질 수도 있음)

결국 지금 이 순간 학교수업에 충실해서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도달하게 되어 있음.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는 있으나 문제는 원하는 곳에 가느냐 하는 것(재수는 대학 다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것임)

3. 혹 정시로 가려면 내신은 안 해도 되나?

정시로 갈 거라고 내신 신경 안 쓰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수능공부를 더 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여유를 보이며 시간을 허비함. 결국 내신 공부가 귀찮은 것에 대한 합리화일 뿐일지도. 그리고 내신의 중압감을 이기는 훈련이 되는 아이들이 결국 수능이라는 거대한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음. 수능은 실력만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태도, 집중력, 그리고 멘탈관리까지도 함께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음

4.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을수록 유리한 것 아닌가?

종합전형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적임. “성적 + 스펙”인 경우 유리하겠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고등학교의 과정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공부할 양이 훨씬 많아 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양한 스펙 쌓는 시간에 수능성적 더 올리는 것이 더 학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학업에 충실하면서 꼭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스펙을 순익을 따져보며 쌓도록 해야 함. 어차피 외부 활동 기록이 제한되는 요즘 학교생활 충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함

학생부종합전형의 키워드는 구체성, 지속성, 진정성임.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하며 유기적으로 스토리화하기. 결국 공부의 과정도 즐거운 물입에 의한 학문의 순수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이기도 함

5. 독서기록이 중요한가?

독서는 국어영역 성적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기도 함. 독서의 방향은 전공관련 도서나 고전소설, 수업시간의 학장 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고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6. 봉사활동은 꼭 해야 하나?

중학교처럼 의무 봉사시간은 없으며, 결석 없이 학교만 다녀도 다양한 기회에 봉사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짐. 단, 종합전형을 노리고 봉사활동을 자기만의 스토리로 활용하려면 한 군데를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이나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됨

7. 진로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 불리하나?

빨리 정하여 목표의식이 생기면 학업에 도움이 되고, 일관된 노력으로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학생부종합전형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계기로 늦게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았다고 설득할 방법도 있으니 억지스럽게 빨리 정하기보다 정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함

8. 대학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재와 궁극적인 대비책은?

표준화시험인 수능을 통해 실력이 증명된 학생들을 가장 선호함. 결론은 내신을 의식하며 평상시 충실히 하는 수능 공부이며 더 힘을 내어 논술까지도 대비가 되면 더 좋고,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대회를 비롯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배려하고 나누는 인성까지 갖추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기회를 얻으면 더 좋음

9. 우리학교에 적합한 입시 방향은?

우리학교는 수성구학군의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수능성적보다 훨씬 더 유리하며 노력해서 얻어낸 것만큼 대학진학의 옵션도 풍부해짐.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학교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시비중이 정시비중보다 압도적으로 커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단, 자신이 성취한 내신 성적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수능최저등급을 맞추는 일임. 평상시 내신 공부에만 열심인 것만으로는 원하는 수능성적을 얻어낼 수 없으니 평상시 체계적인 학습관리와 습관형성을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학습에 충실히 임한다면 입시대박의 잠재성이 매우 큼. 그리고 그 수능의 가능성은 1학년 때의 기본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화려한 성과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10. 정시학대 및 학생 감소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정시학대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 중심인데 현재도 30%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학생부 교과(내신)전형을 30%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북대를 제외한 지방 대학들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크게 체감을 못 할 수도 있음. 학령인구의 감소는 서울의 최상위권대학의 경쟁률을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눈높이를 낮추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대학진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함.

〈마지막 부탁 말씀〉

1. 담임의 역할의 한계 : 저의 약점과 한계를 무릅쓰고라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결단이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올바른 인성을 키워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이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2.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 :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면 학교폭력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평소에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SNS상에서 절제 없이 마구 말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학교와 가정의 협력 : 학생이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잠깐이라도 았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병원이나 가정의 사정으로 보충수업이나 야간학습을 빠질 경우, 반드시 담임문자나 통화로 알려주시고, 각종 납부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마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개인적으로 봉투(소위 촌지)는 물론 선물류나 음료수 등의 간식 등도 일절 사양합니다. 예전엔 간곡한 부탁이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3만원 미만의 선물을 허용한다는 것은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